

삼성전자, 히트펌프보일러 리쇼어링… 연 10만대 이상 양산

정부 난방 전기화 정책 대응 나서
韓 주거환경 맞춤형 제품 개발·공급
LG전자 시장선점… 경쟁구도 선명

삼성전자가 정부의 난방 전기화 정책에 대응해 해외에서 생산하던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로 옮겨 연 10만대 양산에 나선다. 국내 생산을 통해 한국 주거환경에 맞춘 제품 개발과 공급 대응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 시장을 먼저 공략해온 LG전자와 경쟁을 확대한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광주 사업장 제2캠퍼스에 2132㎡ 규모의 'EH S 히트펌프 보일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공정과 설비 안정성, 완제품 성능 등을 검증한 뒤 9월 말 본격 양산한다. 생산능력은 연간 10만대 이상이며 생산 물량은 전량 국내에 공급한다.

생산거점을 해외에서 국내로 옮긴 배경에는 정부의 난방 전기화 정책이 있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난방 전기화 보급사업에 맞춰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면 한국 주거환경과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기 쉽고 공급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목

표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등 난방 전기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에서 열을 흡수해 전기로 이동시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삼성 EHS의 계절성능계수(SCOP)는 35도 출수 조건에서 4.9로 소비전

력 대비 5배에 가까운 열을 생산한다. 가스나 기름을 직접 태우는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어 난방 전기화의 핵심 설비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히트펌프 시장이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히트펌프협회(EHP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21개국의 히트펌프 판매량은 290만대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누적 설치량은 2930만대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해왔다.

국내에서는 제주가 초기 시장을 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생활속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통해 1042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태양광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할 예정인 단독·연립주택 등이 대상으로, 설치비의 70%를 가구당 최대 980만원까지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1418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시장에서는 LG전자가 한발 앞섰다. LG전자는 2011년부터 국내 가정용 히

트펌프 시스템 보일러 사업을 해왔으며 올해 상반기 제주 보급사업에서 1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올해 일체형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를 국내에 출시한 데 이어 제주와 평택의 HVAC 아카데미를 통해 설치·유지보수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에 출시한 뒤 제주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 1418가구 규모의 2차 사업에도 참여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평·충주·남해 등에서는 실제 주거환경에서 난방·온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검증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물산과 제주 및 용인 주거연구소에서 냉방과 난방, 온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EHS 올인원'을 실증하고 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엔솔, LFP 배터리 기반 수주 확대 나서

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내달 초 공고 예정… 사업비 1조 안팎
생산설비·해외실적 앞세워 반전 모색

LG에너지솔루션이 약 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제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앞선 두 차례의 부진을 만회하고 수주 확대를 노린다. 북미 ESS 시장에서 축적한 양산·수주 실적과 총복 오창에 구축 중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기반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르면 9월 초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앞선 입찰과 비슷한 500메가와트(MW)대, 총 사업비는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선 두 차례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적은 물량을 확보했다. 1차 입찰에서는 전체 563MW 가운데 135

MW를 수주했으며 2차 입찰에서는 전체 565MW 중 79MW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1차에서는 삼성SDI, 2차에서는 SK온이 각각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다.

배터리 3사가 모두 국내 ESS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에 나서면서 제3차 입찰의 수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도한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입찰에서는 국내 생산과 공급망 구축, 화재 안전성 등을 반영하는 비가격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7년부터 ESS용 LFP 배터리를 1GWh 규모로 초기 생산하고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공동 기술 개발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북미에서 축적한 양산 경험과 수주 실적도 국내 입찰에서 경쟁력을 뒷받침할 요소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해 6월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북미 지역에 5개의 ESS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현지 생산능력을 50GWh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산 기반과 함께 수주 실적도 쌓였다. 지난해 말 기준 북미 ESS 수주잔고는 약 140GWh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포함해 3조원 이상의 ESS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전체 매출에서 ESS용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0% 미만에서 올해 상반기 20% 후반까지 상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제3차 입찰이 국내 ESS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새로 구축하는 LFP 생산라인의 초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1차에서 삼성SDI, 2차에서 SK온이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간 만큼 LG에너지솔루션도 제3차 입찰에서는 국내 생산 기반과 해외 수주 실적을 앞세워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 연구개발 등 6개 부문 신입 채용

유튜브 설명회 등 지원자 점점 확대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대규모 신입 채용에 나서며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인공지능(AI)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낸다.

최근 경력직 채용에서도 자율주행과 제조 AI, 로보틱스 등으로 인력 확보 범위를 넓히고 있어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전환에 대응한 인재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개발(R&D),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6개 부문에서 총 92개 공고를 내고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유지한다.

현대차는 신입 채용에 앞서 지원자와 점진도 확대한다. 9월 10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현직자와 소통하는 'Team Hyundai Career Lounge'를 열고 우수 참여

자에게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H-슈퍼패스'를 제공한다. 9월 2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채용 설명회도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8월 24일부터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환을 맡은 42dot의 인재 영입은 더욱 직접적이다. 올해 1월에는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기술 '아트리아AI' 고도화를 위해 3~20년 경력의 개발자 50여 명을 모집했다. 모집 분야도 ML 플랫폼, AI, 퍼지컬 AI, VLA, 보안 등 자율주행 기술 전반으로 확대됐다.

현재 42dot에서는 자율주행·AI·데이터·차량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VLM·VLA 기반 AI 엔지니어, 자율주행 데이터·ML 플랫폼 엔지니어, 자율주행 검증(V&V) 엔지니어뿐 아니라 자율주행 제품기획과 차량용 AI 에이전트 등으로 직무가 세분화됐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4 프로' EISA 어워드 최고 제품

인이어 헤드폰 부문… 음질 등 고평가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4 프로'가 글로벌 영상·음향 전문가들이 뽑은 최고 인이어 헤드폰에 선정되며 프리미엄 오디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버즈4 프로는 영상음향전문가협회(EISA)가 주관하는 'EISA 어워드 2026-2027'에서 인이어 헤드폰 부문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 갤럭시 버즈 제품군이 EISA 어워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ISA는 1982년 시작된 영상·음향 분야 평가단체로 25개국 이상의 전문 매체 관계자들이 제품의 성능과 혁신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갤럭시 버즈4 프로



갤럭시 버즈4 프로.

/삼성전자

의 음질과 통화 품질,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출시한 버즈4 프로에서 강화한 오디오 하드웨어가 평가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제품 공개 당시 버즈4 프로를 갤럭시 버즈 시리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음질을 구현한 제품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스피커 구조 변화다. 버즈4 프로에는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와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를 각각 둔 2웨이 스피커가 적용됐다. 두 스피커에는 각각 별도의 앰프를 탑재해 음역별로 독립적으로 구동한다. 전작인 버즈3 프로와 비교하면 우퍼 진동판 크기도 19.8% 커졌다.

무선 전송 음질도 최대 24비트·96킬로헤르츠를 지원한다. 삼성 자체 코덱인 SSC를 이용해 호환되는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과 연결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블루투스 전송 과정에서도 원음에 가까운 하이파이 사운드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남영 기자

한국엔컴퍼니그룹, 계열사 AX 속도낸다

중장기 사업 전략·AX 추진 방향 점검

한국엔컴퍼니그룹이 계열사 중장기 사업 전략과 인공지능 전환(AI)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20~21일 경기 판교 테크노플렉스에서 '계열사 혁신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엔컴퍼니ES사업본부와 모델솔루션, 한국네트웍스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상반기 경영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관세 갈등과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과 사업군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사업 발굴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계열사 간 사업·기술·인프라 협업 확

대 방안도 다뤘다.

인공지능 전환(AI)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그룹은 디지털 전환(DX)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검증해 그룹에 적합한 활용 모델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조·물류 현장에는 퍼지컬 AI 적용을 확대한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의 학습·판단·자율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계열사별 현장에 AI 기반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계열사 간 협업과 AI 활용을 확대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